

과도한 합의 요구 막는 특례제 이용 늘었다

피해자 합의금 1억 요구 '산드로 교통사고'로 형사공탁특례제도 관심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합의·반성없이 감형 법원 재량권 남용 우려에 통일된 양형 기준안 마련 시급

프로축구 광주FC 소속 외국인 선수인 산드로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산드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산드로는 지난해 12월 고국인 브라질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브라질의 새로운 운전면허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면허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사고 피해자는 산드로측에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측이 "무면허

운전으로 향후 있을 논란이나 선수의 경기 참여 등을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산드로측은 경찰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직접 신고하고 구단측은 산드로에게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산드로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롭게 변경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산드로와 같이 가해자의 신분(고위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된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알아야만 변제공탁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범주인들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형에 있어 법원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수단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중용하며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여전히 존재 한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감형을 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을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일 수도 있는데,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판결에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공탁사실이 감형의 조건으로 참작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을 위해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2월 사기던 여성에게 총 219회 전화를 걸고, 443회 문자 메시지와 179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물건을 놓아 두는 등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친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 했음에도 500만원을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목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여성이 어린이집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금고 8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1억 2000만원을 공탁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늘렸다.

결국 법원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만큼 차제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사공탁 여부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했는지, 범죄의 성질이 공탁제도에 어울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는 구체적인 통일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최후의 보루로 공탁이 쓰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면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서영대 마스코트 '줄냥이' 잘 지냅니다

교통사고 수술 후 재학생이 입양 '식욕 좋고 움직임 활발'

광주 서영대 마스코트로 불리는 고양이 '줄냥이' <광주일보 2023년 5월 2일자 7면·사진>가 교통사고 이후 입양돼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지난 17일 퇴원한 줄냥이는 서영대 재학생 김미소(여·20)씨의 가족이 됐다. 김씨는 평소 줄냥이를 가족처럼 돌보던 학생으로, 사고 이후에도 병원과 학교를 왕래하며 퇴원까지 함께했다.

감방이 생활을 접고 따뜻한 집에 살게 된 줄냥이는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완벽하게 적응한 상태다. 앞서 김씨가 키우던 고양이 팡이(3)와 강아지 점순이(10)와도 끈질기게 지낸다.

김씨는 "줄냥이가 밥도, 물도 잘 먹고 심지어는 캣타워에서 점프도 한다"며 "밥을 먹고나서도 더



달라고 야옹거릴 만큼 식욕도 좋고 고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순하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상태는 좋아졌지만 아

직까지 치료는 필요한 상태다. 8시간 간격으로 하루 세번 눈에 안약과 연고를 넣어줘야 하고 소독도 하루 두번씩 해줘야 한다. 23일에는 병원을 찾아 상태 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줄냥이는 지난달 25일 서영대 앞 횡단보도에서 미니버스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길고양이다.

서영대 학생들과 경비아저씨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왔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눈이 실명되고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소식을 접한 서영대 학생들과 경비아저씨는 줄냥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한달 여간의 입원과 대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줄냥이를 애지중지 돌보던 서영대와 인근 중·고등학교, 동네 이웃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1주일만에 1100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수술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은 280여만원으로, 이 중 35만원이 줄냥이 입원 후 용품과 식대로 사용됐다.

/글·사진=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5월의 조선태평경 조선태평꽃제전을 찾은 시민들이 22일 만개한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청, 타 시·도 전입생 고교 배정 '추첨' 변경

7월 1일부터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중·고교 배정 방식 개선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과밀학급 해소, 중·고교 배정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목표로 용역 결과와 교육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교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중학교 학교군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을 위해 구분·설정된 구역 또는 학교 묶음 단위를 말한다. 중학교는 거리·교통 편의성과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다.

현재 광주시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중학생은 2025학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학령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돼 중학교 과밀학급 등이 문제가 돼 왔다.

타 시·도 전입생의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방식도 오는 7월 1일자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광주로 전입하면 거주지에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해 왔다. 이는 광주의 신입생 고교 배정 방식과 달라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광산구 지역 과밀학교에 전입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과 같은 전산 추첨 방식을 전·입학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타 시·도 전입생 배정 방식의 주요 변경 내용은 2가지다. 전입생 거주지의 최근 거리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가능 고교 중에서 5개교를 선택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또 과밀 학급을 운영하는 고교 해당 학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대비 5명 이상 초과한 학교에는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철영 진로진학과장은 "전·입학 배정 방식 변경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고교 배정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고교의 교육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